

멜란지 효과를 나타내는 샴브레이

흰색은 트렌드 칼라로 되는 일이 많다. 단순히 흰색이 아니고, 순백인 점이 중요하다. 순백이라 함은 눈이 부시고, 빛나는 흰색을 말한다. 여름철의 색상으로는 뭐라고 하여도 흰색인데, 흰빛을 띤 색상 또한 여름 색상이다. 이러한 경우 흰빛을 띤다고 하는 것은 연한 색으로 염색된 색사를 사용하여 짙은 파스텔 칼라의 옷감이라든가 파스텔칼라로 필염(천상태로 염색)한 옷감의 색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선명한 색으로 염색한 실(염색사)과 백색의 실(표백사)로 제직하여 나타내는 흰빛을 띤 색상을 의미하고 있다. 서로 다른 색상의 실을 교직에 의하여 나타낸 색이 샴브레이 칼라(chambray color)이다.

샴브레이 칼라는 단일색의 염색으로 나타낸 색상보다도 깊은 맛이 있고, 품위가 있고, 고급감이 있다고 하여도 좋다. 샴브레이 칼라 무지 옷감으로는 샴브레이를 비롯하여 덩가리(dungarees), 데님 등이 있다. 선명한 실로써 가는 스트라이프를 무수하게 나타낸 옷감인 헤어라인(hairline) 스트라이프라든가 코드레인(cordlane) 등은 다소 떨어져서 보면 무지로 보인다. 핀체크(pin check)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무지 품의 격자무늬를 한 옷감이다. 어떤 T셔츠는 언뜻 보면 그레이 색상의 무지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흰색과 그레이 또는 검정색의 섬유가 섞여진 실로 편성한 것이 있다. 이러한 실은 상강사(霜降絲)이다. 면인 경우에는 이것을 룡사(龍

糸)라고 한다. 면직물 옷감에서도 표백사와 검정색으로 염색한 실을 꼬아 합쳐서 한 올의 제직사로 만든 목사(杻糸)도 이용되고 있다. 상강사라든가 롱사, 목사를 사용하여 만든 색상도 샴브레이 칼라이다. 파스텔조의 샴브레이 칼라는 여름철의 엘레강스라고 하여도 좋다.

샴브레이는 경사에 색사, 위사에 표백사 또는 미표백사를 사용한 일종의 멜란지(melange)효과를 나타낸 직물이다. 얇은 것은 여성, 아동복지, 스포츠, 파자마용으로 두꺼운 것은 워킹웨어용으로 쓰인다. 샴브레이라는 어원은 프랑스의 북부 도시 이름 캄브레(Cambrai)에서 유래되었다.